

## 정인보의 한국불교에 관한 인식과 탐구

여 희 정\*

### 국문초록

정인보는 국학자로서 자국의 역사와 학문에 대한 관심이라는 차원에서 한국불교를 주목하고 탐구하였다. 정인보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문화에 남긴 불교의 공헌이 크고 불교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依自와 利他’의 기개와 정신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진수라고 역설하고, 승려들이 국난에 뛰어들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쳤던 일들을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의 호국적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의 고유 사상인 ‘弘益人間’의 맥이 불교에 이어져 불교의 근본 정신과 어울린 데 있다고 보았다. ‘正音學’, 즉 훈민정음에 관한 학문 방면에서도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의 업적을 부각함으로써 훈민정음에 관한 학문에 불교계의 공헌도 컸음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도 정인보가 한국불교가 이룬 큰 업적으로 꼽은 것은 불교 경전의 해석 방면에서 큰 지혜를 갖춘 인물의 배출이다. 그중에서 정인보가 주목했던 인물은 고구려 출신의 승려로서 중국에 건너가 삼론학을 확립한 ‘道朗(=僧朗)’이다. 승량에 대한 연구는 근대 시기에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촉발되어 중국인, 한국인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인, 중국인 연구자에 의해서 승량은 중국불교사에서 다뤄질 뿐이고, 그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과소 평가되는 면이 있었다. 이와 달리 정인보는 승량의 업적과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승량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에서 차지하는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민족의 주체성을 획득하고弘益의 정신이 기반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었던 정인보에게 한국불교는 오늘날 계승하고 싶은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풍부히 담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주제어] 정인보, 한국불교, 국학, 홍익, 호국불교, 주체성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한국불교사와 한국불교학의 위상 연구 |
| II. 한국불교의 독자성 제시          | V. 맺음말                  |
| III. 正音學 방면에 끼친 불교의 공헌 강조 |                         |

\* 대지고등학교 교사 / bamgolbird@naver.com

## I. 머리말

일제 식민지기에 전통 학문과 사상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불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불교에 대한 근대적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을 통해 근대불교학의 연구방법론이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 강학과 주석교리학 위주였던 전통적인 학문 방식과 달리 근대적인 학문 방식에서는 문헌실증주의와 역사학적 고찰을 중시하여 문헌 수집, 계보학적 분류, 비판적 텍스트 해석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불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과 평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sup>1)</sup> 이에 대해 한국인 연구자들은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능화, 권상로, 최남선 등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정인보는 스스로 말한 바 있듯이 불교에 정통한 것도 아니고, 한국불교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다. 그는 양명학을 학문과 사상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유교 지식인으로서 일생을 조선학(국학) 연구에 바쳤다. 그가 불교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도 자국의 역사와 학문에 대한 관심이라는 차원에서였다. 그런 점에서 정인보의 한국불교에 대한 인식과 탐구를 고찰하는 것은 당시 국학 연구의 차원에서 불교가 재평가되어 국학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일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인보가 불교에 관해 쓴 글은 「朝鮮佛敎의 精神問題」,<sup>2)</sup> 「釋道典」<sup>3)</sup>이 있다. 이외에 「義僧將 騎虛堂大師 紀蹟碑」<sup>4)</sup>와 같이 승려에 관한 글이나 「南遊寄信」<sup>5)</sup> 중 신미대사, 학조대사에 관한 언급 등에서 정인보의 불교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정인보의 「朝鮮佛敎의 精神問題」와 관련해서는 하국학과 불교의 교섭에 관해 연구한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sup>6)</sup> 이를 통해 정인보와 박한영이 학문·종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논리를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불교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釋道典」 중 「道朗」의 「三論宗 確立」에 대해서는 승량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저서에서 이 글이 주요 연구 업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sup>8)</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에 관한 정인보의 글을 종합적으로 고

- 1) 김용태, 「근대불교학의 수용과 불교 전통의 재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5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312쪽 참조.
- 2) 정인보, 「朝鮮佛敎의 精神問題」, 『동아일보』 1934년 10월 29일자.; 『薈園 鄭寅普全集』 2,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315~317쪽.
- 3) 정인보, 「釋道典」(「五千年間 朝鮮의 얼」 제252~265화), 『동아일보』 1936년 7월 4일~23일.; 『朝鮮史研究』 下(『薈園 鄭寅普全集』 4),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242~269쪽.
- 4) 정인보, 「義僧將 騎虛堂大師 紀蹟碑」, 『薈園 鄭寅普全集』 6,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345~352쪽.; 정인보(지), 정양완(역), 「의승장 기허당대사 기적비」, 『薈園文錄』 下, 태학사, 2006, 238~248쪽.
- 5) 정인보, 「南遊寄信」, 『조선일보』 1934년 7월 31일~9월 29일.; 『薈園 鄭寅普全集』 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159~214쪽.
- 6) 김윤경, 「근대기 현실인식 및 개혁에 관한 불교와 하국학의 교섭」, 『박한영, 이견방, 정인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7) 인물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다. 정인보는 「道朗」이라고 일컬었지만, 그간의 연구 결과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김성철은 「僧朗」이 원래의 이름이라고 단정지었다(김성철, 『승량-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지식산업사, 2011, 441쪽). 이를 참고로 하여 본고에서는 정인보가 한 말을 언급할 때는 「도랑」이라고 하고, 그밖에는 「승량」이라는 말로 통일하고자 한다.
- 8) 김성철, 『승량 :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지식산업사, 2011.

찰하여 한국불교에 대한 정인보의 인식과 탐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불교의 독자성 제시

### 1. 한국불교의 정신에 대한 환기

불교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되고 우리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타국과 다른 우리 불교의 독자성이란 무엇인가. 자국 문화의 전통과 독자성을 밝혀 자국학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던 정인보가 불교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이것이었다. 1934년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朝鮮佛敎의 精神問題」는 정인보의 불교관과 한국불교에 대한 정인보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글이다.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이지만, 이 글에서 정인보는 불교의 수용 방식과 전개 과정, 한국불교가 외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고문화에 남긴 불교의 공헌이 크고 불교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인보가 ‘조선불교의 진수’라고 말하며 한국불교의 핵심으로 꼽은 것은 한마디로 ‘依自와 利他’의 기개와 정신이다. 이것은 불교에 관한 그의 글 전체를 관통하며 드러나는 핵심이기도 하다.

누구나 朝鮮의 古文化를 생각할 것 같으면 朝鮮佛敎의 功績을 잊지 못할 것이다. 嗚呼라, 往昔은 何日이며 當今은 何日고? 貝多ㅣ 처음 이 땅에 들어올 적이 正히 三國의 盛際라 이쪽의 依自하는 氣概와 自네 獨尊하는 證悟ㅣ 서로 應合하매 그 華는 비록 菩提로 되었으나 神檀故根이 依然히 深固하였나니 佛敎ㅣ 본디 捨身利他를 宗旨로 하는 것이지만 宗國의 弘益을 專圖함이 朝鮮佛敎에 있어서는 더 한층 出類타 할 수 있다. 所遇와 所向을 따라서 隱顯 語默의 參差함이 없지 아니하되 昇平하면 枯寂을 自甘하여 證省하는 標의을 나타내고, 喪亂한즉 危難에 勇赴하여 利濟하는 風槩를 일으키니 冥坐와 赴難이 한가지다 “大心衆生”으로써 함이요, 이 “大心”은 곧 朝鮮으로써 發根함일새 이 곧 朝鮮佛敎의 核心이다.9)

정인보는 불교가 ‘獨尊하는 證悟’를 추구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捨身利他’를 宗旨로 삼는다고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교의 정신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상과 상통하는 면이 있기에 ‘조선불교’<sup>10)</sup>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정인보는 ‘依自’의 기개와 ‘弘益’의 추구가 단군 시대로부터 이 땅에 깊게 뿌리내려온 정신이기에, ‘獨尊’과 ‘利他’를 강조하는 불교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내

9) 정인보, 「朝鮮佛敎의 精神問題」, 『동아일보』 1934년 10월 29일자.; 『蒼園 鄭寅普全集』 2,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315쪽(이하 『蒼園 鄭寅普全集』은 ‘『진집』’으로 표기함).

10) 정인보가 지칭한 ‘조선불교’는 조선시대의 불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의 ‘한국불교’에 해당된다. 본고에서는 정인보가 지칭한 말을 인용하거나 설명할 때는 ‘조선불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서 쓰고자 한다.

부의 고유 사상과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상이 서로 호응하고 융합됨으로써 ‘조선불교’의 독자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국불교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漢土의 佛敎는 闡奧로써 主하여 世法을 外視하였으나 朝鮮의 佛敎는 救難로써 主하여 民益을 自任하였나니 漢土에 있어서 騰空示幻의 異跡으로 淮蔡의 難을 助平함 같은 것은 絶無僅有라 하려니와 朝鮮으로서 보면 單身으로 百濟에 들어가 閭關九死의 苦를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던 麗諜이 누구냐, 僧徒요, 楊廣의 大兵을 險渡로 誘入하느라고 己身을 洪波에 집어던져 乙支의 邀擊을 도와주던 一隊는 누구냐, 僧徒요, “起道用以益也이라” 하여 陽山에서 戰死한 烈丈夫는 누구냐, 僧徒요, 百濟陷敗한 뒤에 福信과 같이 周留城에서 十生 九死로 死灰를 苦吹하던 義士는 누구냐, 僧徒다. 그 뒤에 或 西京을 據하여 國華를 重恢코자 하고, 或 鄭道傳의 文章을 호령하여 揮毫함을 拒絕하고, 그 뒤로 休靜·惟政·靈圭 諸名宿이 다 凜凜한 社稷의 護神이니 聖元曉 宗을 海東으로 標함부터 그 閔懷 보이거니와 義相이 스스로 未澈함을 알아 元曉의 東返할 때 홀로 西征함을 보면 그 苟隨自欺지 아니하는 孤操 또한 기록타 할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의 儒는 漢土로부터 받기만 하였으되 佛은 다시 漢土를 가르쳤고 또 芳風을 扶桑에 보내어 宣揚의 領域이 넓었더니라.<sup>11)</sup>

정인보는 조선불교와 중국불교는 ‘捨身利他’를 실천하는 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기꺼이 몸을 바치며 民益(혹은 國益)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승려들의 존재이다. 중국의 역사에서는 그러한 승려들을 찾아보기 힘든 반면, 우리의 역사에서는 고구려의 첩자로 백제에 들어갔던 승려(도립 스님)로부터 조선시대에 왜적에 맞섰던 휴정·유정·영규대사 등에 이르기까지 승려로서 국난 극복에 나서는 일들이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울러 원효와 의상 등을 거론하며 한국불교가 중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던 일을 말하고, 이것은 한국 유교가 보여주지 못한 점이라며 한국불교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그리고는 한국불교의 그러한 원동력이 ‘依自’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佛法은 궁극적으로 ‘利他的 行’으로 귀결되는데, 利他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가 ‘依自’의 각성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依自의 정신을 지니고 利他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야말로 조선 불교의 위대한 유산이지, 사찰, 승려, 불상, 불화, 불교 지식 등의 융성함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다.<sup>12)</sup>

그런데 정인보의 이러한 견해는 불교계 내부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정인보의 글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인물은 박한영이다.<sup>13)</sup>

우리 법려의 현상으로 보자면 사회론자의 깊고 엄숙한 비판의 소리를 감수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11) 정인보, 앞의 글, 315~316쪽.

12) 위의 글, 316쪽.

13) 정인보의 「조선불교의 정신문제」에 대한 박한영의 비판은 김윤경의 「근대기 현실인식 및 개혁에 관한 불교와 하국학의 교섭: 박한영, 이견방, 정인보를 중심으로」(『인문학연구』 5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에서 다룬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본고는 정인보의 다른 글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정인보의 불교인식에 관해 보다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조선불교의 정신문제」는 오해이다. 과연 논설과 같이 중국불교는 은미함을 밝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세상의 법을 도외시하였으나 조선의 불교는 國難을 구제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民勝을 자임하여 阿道가 동쪽으로 건너온 것이 1560년에서 260 회갑에 이르는 갑술이라 하고 國難에 奮忠한 名宿을 구석구석 널리 찾아서 독자의 미목을 새롭게 하였다. 이 논의를 바르게 평가하면 예전의 引釋入儒, 즉 불교를 끌어다 유교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대의 민족 또는 국민주의로 간과하여 통합하면 아전인수에 불과한 것이다. ……불교의 근본정신이 동서고금에 어찌 달리 있으리오? 구구한 달팽이 뿔 사이에서 술 취한 개미들이 보금자리 지키는 데에 정신이 국한되다가 간혹 짐을 빼 들고 수염을 날려 제척을 받들어 불을 이끄는 것이 불교도가 이어받은 정신이겠는가? 어찌하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응하여 상도를 벗어나서 억지로 만행방편을 삼아 일시에 속제법을 따라 적국에 왕래한 鹿逆을 거론하여 불교의 정신을 이행하였다고 한다면 코끼리를 더듬는 장님의 妙論이다.<sup>14)</sup>

박한영은 1935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우회지 『一光』에 「朝鮮佛教의 精神問題」라는 같은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정인보가 제시한 한국불교의 정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救難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民益을 도모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조선불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예전으로 보자면 '引釋入儒', 즉 불교를 끌어다 유교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대로 보자면 민족 또는 국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웃으며 넘기고 말 것이나 우리 법려의 정신계가 하도 어수선하며 또한 마비에 걸려 있다 학 울음과 바람 소리에도 놀라는 일이 허다한 까닭에 법려로 하여금 自敎의 정신을 때때로 환기하여 主人公 스스로 성큼성큼 마귀굴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정당한 佛祖를 기도하다가 속제법도 모범적으로 따라 護國益民을 도외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회 군자로서는 외적 형식은 비판할지언정 내적 진리, 즉 정신이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은 자라면 함부로 말하지 말기를 바라며, 법을 아는 자의 근심을 반갑게 보아 주기를 바란다.<sup>15)</sup>

불교도로서 佛祖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護國益民'도 도외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데서 보듯이 박한

14) 石顛漢永, 「朝鮮佛教의 精神問題」, 『一光』 5, 中央佛敎專門學校 校友會, 1935.12, 2~3쪽, “우리 法侶의 現相으로는 社會論者의 深潭嚴效도 甘受할 境遇에 在하였지만은 根本的 朝鮮佛教의 精神問題는 誤解이다 果然 論說과 如히 漢土의 佛敎는 閻幽로써 主하여 世法을 外視하였으나 朝鮮의 佛敎는 救難으로써 主하여 民勝을 自任하였다 하야 阿道渡東이 一千五百六十年至二十六回甲年甲戌이라 하고 國難에 奮忠한 名宿을 冥搜博訪하야 讀者의 眉目을 聳新게 함이다……此義를 正評하면 昔日 境遇에 引釋入儒라 하는 개요 現代에 民族 又是 國民主義로 看破하야 統合하면 我田灌溉에 不過함이다 因明論에 所謂不善他量이라 하다. 佛敎의 根本精神의 何普東西古今이 唯 잇스리오 區區한 蝸角間에서 酣蟻保窠하는 데서 精神이 局束하야 或 杖劍揚鞭하야 奉謀導火가 佛敎徒의 傳授한 精神일가 어찌하다 不得已한 境遇에 對하야 倒行逆施의 萬行方便으로 一時에 俗諦法을 隨順하야 敵國에 一往來한 鹿逆을 學하야 佛敎의 精神을 履行하였다 하면 摸象盲者의 妙論이다.”

15) 위의 글, 2~3쪽, “莞爾視之하고 말 것이나 우리 法侶의 精神界가 混散하며 또한 麥痺에 걸려있다 鶴唳風聲이 殊多한 故로 法侶로 하여금 自敎의 精神을 時時喚起하야 自主人公이 駭駭然히 那魔窟에 不引入에야 正當佛祖를 期圖하다가 俗諦法도 式順하야 護國益民에 不外할 것이오 社會君子에 對하야는 外形式은 批評할지언던 內真理即精神은 其門에 不入者어든 三尺喙라도 妄搖지 幸勿하짓고 識法者懼를 請拭靑看할지이다.”

영도 정인보가 말한 救難과 民益을 위한 실천의 가치를 인정했다. 다만 이것은 박한영에 따르면 ‘속제법’에 해당하는 차원일 뿐이다. 다시 말해 승도의 사회적 실천 차원에 해당하는 가치이지 불교 정신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二諦 관념에 의하면 ‘眞諦’는 궁극적인 진리, 즉 일체의 언어를 초월한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높은 사유의 경지를 가리키고, ‘俗諦’는 세간적이고 상대적인 진리, 부처가 중생을 위해 언어라는 방편을 사용하여 나타낸 진리를 말한다.<sup>16)</sup> চেয়의 구도로 보자면, 출세간의 법인 진제는 體이고, 세간의 법인 속제는 用이다. 박한영이 불교의 근본정신은 동서고금에 다름이 없으며 국난에 맞서 승군으로 참전한 경우와 같은 것은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방편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진제와 속제의 의거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用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불교의 근본 정신을 말한 정인보의 인식은 불교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조선불교의 수준을 더 낮추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정인보와 박한영은 매우 절친한 사이로 답사나 문예 활동을 함께 하는 일이 많았음에도 조선불교의 정신에 대해서는 이처럼 상이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sup>17)</sup> 박한영의 비판에 대해 정인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1939년에 정인보가 쓴 「石顛上人小傳」을 보면, 자신에 대해 “불교경전을 좋아하는 하되 깊이 못하”<sup>18)</sup>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 같은 淺者야 세속적인 것이나 보아 胸懷를 그릇 헤아리지만, 物外에 노니는 道人은 대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보는 것”<sup>19)</sup>이라며 겸손한 태도로 불교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볼 때, 불교의 깊은 진리를 모를 경우 함부로 운운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박한영의 조언을 수긍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훗날 쓴 「義僧將 騎虛堂大師 紀蹟碑」를 보면 조선불교의 가치 및 진수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철회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불교의 정신문제」에서 피력 하였던 조선불교에 대한 관점은 「의승장 기허당대사기적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騎虛堂大師의 추모를 통한 한국불교의 원동력 강조

「義僧將 騎虛堂大師 紀蹟碑」는 임진왜란에 승병장으로 나서서 왜적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기허당 영규 대사의 비문으로, 정인보가 해방 이후 1950년에 쓴 것이다. 義人을 추모하며 세상에 알리는 일은 일제강점기부터 정인보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고무시키고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작업이었다. 그런데 義人을 기리는 여타의 글 가운데도 이 글이 주목되는 것은 불교에 대한 그의 인식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승장 기허당대사기적비」는 내용상으로 크게 영규대사의 행적을 서술한 부분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16) 하유진, 「불교의 이제설(二諦說)」, 『철학논집』 16,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116~120쪽 참조.

17) 정인보와 박한영 간의 학문·사상의 교섭 양상과 종교 인식 면에서의 이견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김운경, 「근대기 현실인식 및 개혁에 관한 불교와 하국학의 교섭: 박한영, 이진방, 정인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18) 정인보(저), 정양완(역), 「石顛上人小傳」, 『蒼園文錄』 上, 태학사, 2006, 279쪽.

19) 위의 글, 278쪽.

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던 주요 승장으로 영규대사를 거론하고, 탄생부터 입란 이전까지의 행적을 매우 간략하게 언급한 뒤, 청주 전투, 금산 전투, 최후담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때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금산 전투와 최후담이다. 청주 전투와 금산 전투에서 영규대사는 조현과 함께 싸웠고 둘다 금산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부 문헌에 따르면 당시 군대가 금산을 향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장수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현과 이산겸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고<sup>20)</sup>, 조현과 영규대사가 그러한 경우도 있다. 정인보의 비문은 후자에 해당한다. 조현에 비해 영규대사에 관한 문헌이나 금석문이 적은 데다가 이처럼 조현과 영규대사가 대립을 보였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훨씬 적은 편이다. 이전의 문헌들 가운데에는 성해응의 『錦山殉節諸臣傳』,<sup>21)</sup> 윤국형의 『聞韶漫錄』 등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영규대사가 금산 전투에서 패한 뒤 재기를 노리며 창자를 부여잡고 공주로 이동하여 죽었다고 서술한 최후담은 조현이나 영규대사에 관한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영규대사의 설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설화에서 영규대사가 금산 싸움에서 죽지 않고 재기하기 위해 달아났다가 금산 보석사 또는 공주의 계룡면 유평리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sup>22)</sup> 특히 공주·논산 지역의 설화에서 영규대사가 금산이 아니라 공주에서 죽었다는 최후담이 많이 보인다.<sup>23)</sup> 국사와 야사를 살펴보았다는 정인보의 말을 참조해 볼 때,<sup>24)</sup> 이는 정인보가 이 지역의 설화를 수용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sup>25)</sup>

이처럼 금산 전투를 둘러싼 조현과 영규대사의 대립, 영규대사가 공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최후담은 여타의 글 가운데에서도 정인보의 「의승장 기허당대사 기적비」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다. 여러 문헌과 설화들을 참고하며 정인보가 이와 같이 영규대사의 행적을 재구성한 데에는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정인보의 관점이 뚜렷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비문의 후반부에서 확인된다.

정인보가 영규대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강조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조현과 영규대사의 義가 한 가지라는 점과 조선불교의 진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조현과 영규대사의 義가 한 가지라는 점은 두 사람이 상이한 선택과 행로를 보였으나 결국은 하나임을 말한 것이다. 이는 영규대사와 조현의 이견 대립을 서술했던 성해응, 윤국형의 관점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다. 이들 문헌에 따르면 당시 조현은 금산에서 왜적과 싸우고 있던 고경명이 패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당장 부대를 이끌고 금산으로 가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규대사는 관군의 도움도 없고 우리 부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금산행이 마땅하지 않다며 반대를 했다. 그럼에도 조현은 충의를 말하며 금산으

20) 金集, 「重峯趙先生諡狀」, 『慎獨齋全書』 第11卷.; 宋時烈, 「重峯趙先生行狀」, 『宋子大全』 第207卷.

21) 成海應, 「錦山殉節諸臣傳」, 『研經齋全集』 권60.

22) 강현모, 「기허당 영규대사의 서사전승 연구」, 역락, 2013, 41쪽.

23) 위의 책, 43~50쪽.

24) 정인보(저), 정양완(역), 「의승장 기허당대사 기적비」, 『麓園文錄』 下, 태학사, 2006, 240쪽.

25) 신동훈은 『大東奇聞』이나 정인보의 「기적비명」의 내용은 공주지역에서 구비 전승되고 있는 내용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기적비명」에서 영규대사가 자신의 능력을 숨겼다는 내용이 구전자료의 수용이라는 것이다(신동훈, 「역사 인물담의 현실대응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27쪽(강현모, 위의 책, 16쪽에서 재인용)).

로 향했고 영규대사는 조현을 홀로 죽게 할 수 없다며 뒤따랐다. 결국 이들은 금산에서 대패하고, 함께 한 칠백여 명의 사람들은 전몰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성해응과 윤국형은 조현이 영규대사의 호소를 외면하였던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정인보는 두 사람의 선택이 모두 義로운 결단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조현은 적을 감당할 수 없을 상황임을 알면서도 구차히 살고자 하기보다는 죽음으로써 충의를 다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영규대사는 “죽으면 함께 죽을 뿐이다”는 마음으로 조현과 함께 싸웠다가 재기를 노리며 창자를 부여잡고 공주로 이동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살아남고자 했던 것은 뜻을 다하지 못하고서는 차마 죽을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것이 대사의 용맹이자 義라는 것이다.

요컨대 정인보는 두 사람은 죽는 길과 살아남는 길을 달리 선택했을 뿐 모두 자신의 義를 다하기 위한 길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규대사에 대해 정당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외침으로 인해 겪게 된 치욕스럽고 암담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정인보가 당시 마주했던 문제이기도 했다. 조선이 망하자 죽음으로써 항거하며 절의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살아남아 죽은 사람들의 원통함을 껴안으며 뜻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義를 지킨 이들이었고, 정인보가 따르며 함께 하고자 했던 이들이었다. 임진왜란 때 보인 영규대사와 조현의 義가 한 가지라고 말하는 그의 평가에는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던 자신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영규대사에 관한 정인보의 비문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영규대사의 행적을 통해 밝히는 조선불교에 대한 견해이다.

중국의 고승은 鄧雲峰 말고는 불법으로 군을 도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유독 이 땅 청허의 문도만은 높은 제자, 평소에 명망 있는 고승이 국난에 달려가, 비록 구적과 싸우기 한창 심한 때를 만나더라도, 온 천하와 더불어 같이 분개하였으니, 천천히 그 까닭을 살펴보건대, 진실로 또한 내림(由來)이 있다. 대개 신라의 國仙·고구려의 皂衣先人是 모두 환웅 임금의 끼치신 가르침의 얼림으로, 사납고 강건함을 높이고, 志節을 드날려, 나라에 일이 생기면 때 지어 이를 위해 죽었으니 역사에 나타난 것을 오히려 상고할 수 있어 유교와는 다른 바다.……

國敎가 차츰 바뀔에 미쳐, 고려 때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仙郎을 세워 무리를 모으니, 중과 민간인이 함께 받들더니 왕조가 한양으로 바뀔에 끊어졌으나 그 남은 진액과 나머지 윤기가 불교에 배이고 젖어, 중은 웅건·용맹을 귀히 여겨 제 힘으로 섰지 남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로 한테 열리어 민족을 비호하였던 것이다.

청허는 불교의 고승 가운데 선종이나 그 門徒가 씩씩하고도 의로움은 왜 그런지 모르게 그런 것인 즉, 그 風敎의 내림은 멀다. 대사는 다시없이 뛰어난 佛門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의병을 일으켰고, 뜻이 그 한 몸으로 엄청난 왜구를 이기려 하였는데, 상처를 입어 죽게 되니 그 의가 이미 극진하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정신이 있는 것 같음에 미쳐서는 그 죽는 것만으로는 미진하다 하여, 다시금 제 힘으로 그 다하기를 구한 뒤에야 그쳤으니, 대사는 천지에 맞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풍의 오랜 숭상을 드러내며, 또한 불교의 진수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sup>26)</sup>

26) 정인보(저), 정양환(역), 「의승장 기허당대사 기적비」, 『薈園文錄』 下, 태학사, 2006, 241~242쪽.; 정인보, 「義僧將 騎虛堂

이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정인보의 견해는 「조선불교의 정신문제」에서 말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보면 정인보가 한국불교를 주목한 것은 불교의 교리 자체나 종교적 본질 등에 대한 관심이 주된 이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가 평생 가장 주력한 것은 국학자의 관점에서 자국의 학문과 사상, 역사와 문화를 고찰하고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자국학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 현재에 되살리고자 했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依自의 기개와弘益의 추구’이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환웅 임금’이 남긴 가르침으로 삼국 시대, 고려 시대의 ‘國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신라의 國仙, 고구려의 桓依先人, 고려의 仙郎 등이 이를 확인해 준다는 존재들이다. 영규 대사와 같이 청허 서산대사의 문도들도 이러한 國風이 조선불교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들도이다. 정인보는 이러한 면모야말로 중국의 불교와 다른 조선불교의 독자적 특징이며, 유교와 달리 조선불교가 우리 역사에 끼친 공헌임을 설파하고자 하였다. 정인보가 ‘호국불교’라는 말을 쓴 적은 없지만, 이러한 그의 불교 인식은 호국론적 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호국불교의 인식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후에 생성되었고,<sup>27)</sup> 한·중·일 삼국에서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담론화되어 나갔다. 일본의 경우 천황제 군국주의의 성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불교계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면,<sup>28)</sup> 전시체제로 접어든 1930년대 후반에는 국체(천황)와 불교를 결합시킨 황도불교론을 표방하였다.<sup>29)</sup> 중국은 외세 침략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현실적 대응을 위한 이론적 구심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교에 관심을 보였던 지식인들이 많았다. 특히 대승불교의 救世主義적 관점에서 정치사회적 개혁과 새로운 국가관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불교호국론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sup>30)</sup>

식민지 조선에서 호국불교 담론은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의 전시체제기에 급격히 부상했고, 일본의 국가불교, 황도불교 노선을 답습하며 정치적으로 종속된 체제불교의 성격을 띠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31)</sup> 한편 이 무렵 일본인 江田俊雄(에다 토시오)가 한국불교의 호국적 전통에 주목한 「朝鮮佛敎と護國思想」을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의 승려들이 국가 존망의 위기에 활약했던 것은 타국의 불교사에 비해 특이한 현상이라며 지리상 외침이 잦았기에 불교의 호국사상이 역사 속에서 종종 드러났다고 보았다.<sup>32)</sup> 그 후로도

大師紀蹟碑」, 『전집』 6, 349~350쪽, “震恒古德, 自鄧雲峰外, 未聞有以法助軍者, 獨此土清虛之徒, 高足名宿, 馳驅國難, 雖會寇賊方劇, 溥天同憤, 而徐推其故, 諒亦有由, 蓋新羅之國仙, 高句麗之自依仙人, 皆桓儉遺教之聚, 尙驍健, 厲志義, 國有事, 則羣以死之, 見於史者, 尙可考, 以其別於儒也. ……迨國教浸替, 至麗世, 乃猶立仙郎, 聚徒衆, 緇白同奉, 鼎遷漢上, 絕矣. 其遺液餘潤, 沁漸叢林, 而釋貴雄猛, 自樹, 不傍於外, 故與相滙融, 歸之元宗. 清虛龍象禪門, 而其道弟之健且義, 有不自知其然而然者, 則其風之所自遠矣. 師尤絕出, 自發起空寂之中, 志將以一身 龕巨寇, 被創而死, 其義已盡. 及其微若有省, 則以其死爲未盡, 而更自力以求其盡然後已, 不惟師炳烺天壤, 於以顯國風舊尙, 而亦以見佛之真焉.”

27) 김용태, 「한국불교사의 호국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 『大覺思想』 17, 대각사상연구원, 2012, 45쪽.

28) 원영상의 「『蓮主義의 불법호국론과 國體論 -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學)의 논리를 중심으로』(『불교학보』 4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7.)에서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기에 천황제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불교계가 대응했던 양상을 타나카의 일련주의를 통해 고찰하였다. 타나카의 일련주의는 천황제 군국주의를 지향한 일본의 근대국가의 이념 형성에 적극적인 인 자세로 대응했다는 데 그 특색이 있으며, 이후 군국주의의 우익사상가들에게 시대에 조응하는 논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보았다.

29) 김용태, 앞의 논문, 2012, 45쪽.

30) 김연재, 「중국근대의 민족불교에 있어서 護國論의 대두와 그 성격」, 『불교학보』 4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6, 84~103쪽 참조.

31) 김용태, 앞의 논문, 2012, 67쪽.

한국불교의 호국적 전통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호국적 전통에 주목하여 이를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본 정인보의 인식 또한 당시 호국불교 담론의 자장 내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에다 토시오와 비교해 보면 정인보의 호국적 관점이 보여주는 차이가 드러난다. 에다 토시오는 불교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전쟁을 용인하고 있음을 말하며 불교와 전쟁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sup>33)</sup> 그리고 한국불교의 호국적 전통이 주변국들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에 처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정인보는 대승불교의 救世主義적 관점에 입각하여 護國적 실천에서 불교의 진수가 드러난다고 파악하였다. 나아가 우리 역사에서 국난에 용맹스럽게 뛰어들어 자신을 기꺼이 던졌던 승도들의 존재가 이어져 왔던 것은 우리의 고유 사상이 면면히 전해 내려와 불교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호국불교 담론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펼치는 군국주의 성향으로 빠질 위험성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대승불교의 救世적 관점에서 당대 현실에 대응하고자 했던 정인보나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의 불교 인식은 제국에 맞선 민족 불교의 성격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인보의 호국불교적 관점 또한 중국 근대지식인들의 국난 극복에 대한 인식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인보는 중국불교와 다른 한국불교만의 독자적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I. 正音學 방면에 끼친 불교의 공헌 강조

정인보는 민족주체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학문을 재평가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력했다. 사대주의적이고 비주체적인 태도로 외부의 학문과 사상을 추종하기만 한 학문은 여지없이 비판을 가했고, 자국과 관련한 학문적 성과를 발굴해 나갔다. 그러한 영역의 하나가 이른바 ‘正音學’이다. ‘정음학’은 정인보가 훈민정음에 대해 연구한 학문을 일컫었던 용어이다. 정인보는 이 ‘정음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물로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를 거론하였다.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에 관한 내용은 「南遊寄信」에 보인다.<sup>34)</sup> 「남유기신」은 충청도 속리산 부근의 華陽洞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수-목포 간 바다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정인보 일행의 첫 여행지인 화양동은 송시열이 만년에 강학했던 곳으로 조선 후기에 실권을 잡았던 노론계 사대부들에게 사상적·정치적 토대였던 곳이다. 또한 명나라 신종(神宗)을 위한 사당인 만동묘가 있는 곳으로 대명의리론과 조선 중화주의를 떠받치는 심장부 역할을 했던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문헌과 유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32) 江田俊雄, 「朝鮮佛敎と護國思想—特に新羅時代のそれに就いて」, 『朝鮮』 239, 朝鮮總督府, 1935, 53쪽.

33) 위의 논문, 52쪽.

34) 여희정, 「정인보의 글쓰기와 민족문화의 기획」(한국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에서 「南遊寄信」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며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 내용을 참조하여 본고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정인보가 보기에는 그 대부분이 명나라를 향한 정성으로 가득한 내용일 뿐이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정인보는 화양동 일대를 ‘明土化’한 곳이라고 부르고 씩씩함을 느끼면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향한 곳이 부근에 있는 속리산 복천암이었다. 이곳에서부터 정인보 일행의 진정한 국토 답사가 시작된다. 중화사상과 사대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을 벗어나 조선학의 중심지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복천암은 세조가 난치병이었던 피부병을 치료한 곳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는 세조가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암자 부근의 목욕소에서 목욕한 뒤 피부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하지만 정인보가 복천암에서 두 대사와 관련하여 더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정음학 방면에 끼친 공헌에 대해서이다.

더우기 信眉는 內典에만 弘通한 사람이 아니라 訓民正音 頒布된 뒤 가장 正音學에 對한 깊은 造詣를 가졌나니 “翻經都監”이 실로 이를 中心하고 한 것이라 世祖의 寵遇를 받음이 까닭 없음이 아닌데 信眉 일찌기 俗離에 있었던지라 이로 因하여 御輦이 이 山中까지 드시게 된 것입니다.<sup>35)</sup>

조금 가면 번듯한 잔디밭 우에 浮圖 둘이 있으니 사긴 글자가 완하여 잘 알 수 없는데 石霜上人の 말을 듣고 자세히 더듬어보니 하나는 ‘學祖燈谷之塔’이요 하나는 ‘秀岩和尚塔’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殘劃을 辨別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지나가면 石刻 가지고는 證據할 痕迹이 없을 것 같습니다. 福泉寺 들어오는 길로 말하면 먼저 學祖塔을 보게 되고 이 탑을 지나서 秀岩塔을 보게 됩니다.

國初 佛家の 偉傑임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둘이 다 正音學의 名碩이라 그 苦心한 자취 아직껏 學者의 津筏로 남았거니와 正音으로써 文章을 自著한 것으로 信眉의 「永嘉集跋」과 學祖의 「五臺山御牒書後」 같은 것이 다 簡潔 典重하여 읽으며 朝鮮古代의 詞氣를 接하는 듯하니 이를 생각하고 空山 속 一片石塔을 돌매 어떠한 一種의 芳香이 그윽한 속에 풍기는 것 같습니다.<sup>36)</sup>

여기에서 정인보가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를 ‘佛家の 偉傑’이자 ‘正音學의 名碩’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신미 대사는 훈민정음 반포 뒤 정음학에 대해 가장 깊은 조예를 가진 인물이며 ‘翻經都監’의 중심이었다. ‘변경도감’이란 조선 초기에 불전과 언해본 간행을 관장한 刊經都監을 말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1461년(세조 7년)에 설치되어 1471년(성종 2년)에 폐지되기까지 한문본 31종, 언해본 9종을 간행했다고 한다.<sup>37)</sup> 이 사업에 도제조, 제조 등의 관원을 비롯하여 信眉, 守眉, 學祖, 學悅 등 다수의 승려들이 참여했다.<sup>38)</sup> 정인보는 그 중심을 신미 대사로 보았다.

또한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가 훈민정음으로 쓴 글인 「永嘉集跋」과 「五臺山御牒書後」를 언급하며 ‘간결 전중하여 ‘조선고대의 詞氣’를 볼 수 있다고 평하였다. 신미 대사가 쓴 「永嘉集跋」은 1464년(세조 10년)에

35) 정인보, 「南遊寄信」, 『전집』 1, 170~171쪽.

36) 위의 글, 174~175쪽.

37) 최윤곤, 「刊經都監의 실체와 불전 간행 사업」,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155쪽.

38) 위의 논문, 156~157쪽.

간경도감에서 雕印한 『禪宗永嘉集諺解』에 수록된 글이다. 이 책은 세조가 口訣을 달고 신미대사가 언해한 후 孝寧大君과 海超 등이 교정한 것으로, 신미 대사의 발문 외에 효령대군의 발문도 붙어 있다.<sup>39)</sup>

「五臺山御牒書後」는 「상원사증창권선문」 중 ‘권선문’의 언해문을 말한다. 「상원사증창권선문」은 편지글 두 편으로 이루어진 첩장이 중복하여 장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편지글이 1464년에 승려들이 상원사를 중수할 때 시주를 모으기 위해서 쓴 ‘권선문’이다. 두 번째 편지글은 이후 세조가 상원사 증창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면서 내린 서찰, 곧 ‘어첩’이다. 첫 번째 첩장에는 두 편지글의 한문 원문과 언해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 첩장에는 편지글의 원문만 있다. 또한 첫 번째 첩장의 표지에 ‘御牒’이라는 書外題가 있다. ‘권선문’ 말미에 쓴 이름 및 수결과 ‘어첩’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신미, 학조, 학열 등이 권선문을 썼음을 알 수가 있다.<sup>40)</sup> 「남유기신」에서 정인보가 ‘학조의 「五臺山御牒書後」라고 언급한 것은 학조 대사의 부도탑을 보면서 그의 자취를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인보가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가 正音學 방면에 끼친 공헌에 주목한 것은 당시에 이루어졌던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에 기대고 있는 바가 크다. 신미 대사는 간경도감의 불전언해 사업을 주도했고, 신미 대사의 제자였던 학조 대사는 간경도감 폐지 이후에도 언해의 遺業을 마무리하는 등<sup>41)</sup> 불교와 훈민정음 방면에 공헌이 많았다. 그럼에도 승유역불의 조선조에서 이들의 업적은 잊혀지고 말았다. 이들이 다시 주목 받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조선학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일본인의 불교 연구에 자극을 받아 이능화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방대하게 정리한 『조선불교통사』를 1918년에 내놓았다. 이 책에 간경도감의 불경언해나 신미 대사, 학조 대사에 관해 다룬 내용이 있고, 『永嘉集諺解』, 「상원사증창권선문」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다.<sup>42)</sup>

또한 1928년에 최남선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상원사증창권선문」 원본을 발굴하고, 이듬해 『불교』 종합지에 전문을 게재함으로써 「상원사증창권선문」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졌다.<sup>43)</sup> 이는 최남선이 한글로 쓴 불서나 자료에 관심을 보이고 문헌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던 당시에 이룬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오대산상원사증창권선문」은 1929년에 高橋亨(다카하시 토오루)에 의해 그 全貌가 寫眞版과 함께 상세하게 소개되기도 하고, 1936년에는 國寶 235호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sup>45)</sup> 다카하시 토오루는 『이조불교』와 2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쓸 정도로 조선불교 연구에 열의를 보였던 인물이다.<sup>46)</sup> 이상에서 보듯이 정인보가 복천암을 찾

39) 민덕식, 「慧覺尊者 信眉의 家系와 生涯」, 『忠北史學』 24, 충북대학교 사학회, 2010, 75쪽.

40) 김무봉, 「상원사 증창 권선문 해제」, 김무봉 역주, 『상원사증창권선문·영험약초·오대진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7~9쪽.

41) 이봉춘, 「朝鮮前期 佛典諺解와 그 思想」, 『한국불교학』 5, 한국불교학회, 1980, 50쪽.; 황인규, 「朝鮮前期 佛敎界의 三和尙攷-信眉와 두 제자 學悅·學祖-」, 『한국불교학』 37, 한국불교학회, 2004, 234~242쪽.

42) 李能和, 『朝鮮佛敎通史』 下, 민속원, 2002(1918년 초판 영인), 690~700쪽, 863~868쪽.; 『朝鮮佛敎通史』 上·中, 민속원, 2002(1918년 초판 영인), 422쪽.

43) 최남선, 「影印 五臺山御牒紋」, 『佛敎』 59, 佛敎社, 1929.5.

44) 김종진, 「근대불교잡지의 한글인식과 한글문화운동」, 『불교학연구』 43, 불교학연구회, 2015, 173쪽.

45) 최범훈, 「五臺山 上院寺 御牒重創勸善文에 대하여」, 『一山金俊榮先生停年紀念論叢』, 一山金俊榮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5, 630쪽.

46) 조남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연구」, 『한국사상과문화』 2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아가서 두 대사의 언해문을 떠올린 데에는 이러한 학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음학 방면의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를 자리매김한 것이다.

#### IV. 한국불교사와 한국불교학의 위상 연구

정인보는 우리의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동아일보』에 「五千年間 朝鮮의 얼」을 1935년 1월부터 1936년 8월에 이르는 동안 총 282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중 한국불교에 관해 탐구한 내용을 담은 글이 「釋道典」이다. 「釋道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불교의 한반도 유입 시기 및 경로, 둘째 백제의 불교 유입과 인도승 마라난타, 셋째 도랑과 삼론종 확립이다. 첫째, 둘째는 불교 유입과 관련된 내용이고, 셋째는 우리 불교가 불교문명사에 미친 영향 및 위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근대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불교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던 당시에 주목되던 문제이기도 했다.

##### 1. 한국불교사 再考 : 불교의 유입 시기 및 경로에 관한 고찰

불교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중국의 진나라로부터 불교가 처음으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條에 秦王苻璜이 사신과 승려 順道를 보내어 불상과 경전을 전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인보는 이는 남아 있는 문헌으로 불교유입의 시초를 살펴본 것일 뿐, 실제상으로는 그 이전에 불교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에 다른 경로로도 불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인도문화가 동진하던 노선을 추적해 볼 때, 인도에서 투르키스탄, 타림 분지를 거쳐 중국 감숙 지방으로 나아간 경로와 타림 분지에서 몽고 사막을 횡단하여 중국 변방 바깥으로 나아간 경로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중국을 통한 경로라면 후자가 중국 이외의 경로에 해당한다. 정인보는 후자의 경로에서 선비족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당시 중국 변방의 바깥에 있던 선비족은 동서를 왕래하고 있었고 고구려를 종주로 여기며 그 지휘를 받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매개로 불교문화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문헌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단초를 제시하였다. 『三國史記』에서는 고구려 유리왕 24년(47년)조의 “箕山에서 異人을 얻었는데 兩腋에 깃이 있어 姓을 羽氏라 하고 皇女를 尙하게 했다”는 기록에 주목했다. 여기에 묘사된 양쪽 겨드랑이의 깃털은 희랍, 로마의 神像에 가끔 보이는 것으로, 이 異人이 박트리아 왕국 月氏 부근 사람이거나 그 지방을 경유하여 온 인도 승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大唐西域求法高僧傳』 「阿耶跋摩傳」의 주석에서 ‘鷄賁’를 범어로 설명하는 기록을 주시하며 고구려-인도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자취를 읽고자 하였다. 한편 『삼국유사』 阿道基羅條의 ‘我道本碑’에 대한 기록에서 ‘我崛麻’와 ‘我道’의 관계, 이들이 왕래하며 만났던 시기를 검토하며 고구려에 불교가 유

입된 시기가 고구려 소수림왕 시기 훨씬 이전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소수림왕 때 진나라 왕이 사신과 승려를 보내어 불상과 경전을 보냈던 일은 불교가 국가 차원에서 장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sup>47)</sup>

불교의 유입 시기 및 경로는 당시 한국불교사를 연구하던 이들이 관심을 가지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능화, 박한영 등도 정인보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소수림왕 때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유입되었다는 통설에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 앞선 시기, 중국 이외의 다른 경로의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였다. 하지만 증빙할 만한 기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박한영은 가락국과 금강산이 인도에서 직접 들어온 조선불법의 연원지이고 중국 孝明帝 때보다 앞선 시기에 불교가 유입되었다고 보았지만, 실제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이 없어 이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sup>48)</sup> 이능화는 신라 남해왕(2대 朴次次雄, 재위: 4~24년) 때의 「楡岾寺月氏金像」, 가락국 수로왕(재위 42~199) 때의 아유왕후 「금관성파사석탑」의 기사를 인도불교가 직수입된 증거로 보았다.<sup>49)</sup> 하지만 다른 자료가 더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기록만으로 1~2세기에 이미 인도에서 직접 불교가 유입되었다는 견해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했다.

정인보는 국학자로서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는 차원에서 불교의 한반도 유입 시기 및 경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시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중국의 진나라로부터 불교가 전해졌다는 기록에 근거한 통설이 실제 역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못한다고 보았고, 그 이전 시기에 또 다른 경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주체적으로 국학을 연구하고자 했던 이들이 공유했던 문제의식이었고,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입증을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 물론 정인보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부족하여 상당 부분이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교 유입과 관련한 단서를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2. 한국불교학의 위상 提高 : 道朗의 三論學 확립에 대한 연구

정인보가 불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가장 깊이 탐구한 내용은 불교사에서 한국불교가 지니는 의의 및 위상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정인보는 중국불교와 비교하며 한국불교가 이룬 업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정인보가 주목한 인물이 '道朗'이다. 「道朗의 三論宗確立」은 「釋道典」중에서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해 쓴 글 가운데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가장 두드러진 연구 성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정인보가 '도랑'을 중요한 인물로 여기며 깊이 천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47) 정인보, 「釋道典」, 『朝鮮史研究』 下(『簞園 鄭寅普全集』 4),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242~246쪽.

48) 고영섭, 「영호당 박한영과 상현기사 이능화의 학문태도와 연구방법」, 『한국불교학』 78, 한국불교학회, 2016, 57~58쪽.

49) 김효탄, 「이능화의 불교사 인식」, 『불교학보』 4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3, 308쪽.

우리 先民의 佛學에 對한 發展을 尋討하건대 三國時代佛學은 高句麗가 가장 먼저요, 또 그 卓特, 振發함이 亞東佛敎史上에 있어 偉光을 橫放하였는데 이는 전혀 義解에 關하여 拔類한 大智가 輩出함으로 쓰다. 譯經期를 넘어서 群智를 모아 義解에 輻湊하던 때 高句麗 비로소 省門, 伊佛蘭 創寺의 役을 擧하였으니 아무리 一二 古德들의 啓先의 業이 그 앞서 있었다 하더라도 震朝에 比並한다면 어찌 懸絶치 아니하냐? 그런데 이쪽 佛學發揮의 速度가 놀랄 만큼 超邁하여 不過 幾十年後 亞東佛學上 채 씻지 못한 慧日이 高句麗沙門의 智海로부터 一次 濯浴함을 지나 비로소 그 寶光을 晃耀케 하였으니 (……) 震朝에 뒤졌다가 어느덧 에서 부는 宗風이 亞東을 摺伏하게 된 것은 決코 漫然한 바 아니다.<sup>50)</sup>

정인보는 한국불교가 중국불교에 비해 초기에는 뒤쳐졌으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불교학에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한국불교가 이룬 큰 업적은 불교 경전의 해석 방면에서 큰 지혜를 갖춘 인물을 배출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정인보가 주시한 인물이 바로 '도량'이다. 삼론종이라는 불교의 한 종파를 확립함으로써 동아시아 대승불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도량'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도량이 고구려 승려로서 중국으로 건너가 활약했음에도 중국의 僧傳에서도, 한국의 傳에서도 다루진 바가 없었다. 정인보는 이처럼 '도량'을 제대로 다룬 저술물이 거의 없고 그가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묻혀 있는 것을 매우 한탄했다.<sup>51)</sup> 정인보가 '도량'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은 역사에 묻힌 '도량'을 복원함으로써 그를 기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sup>52)</sup>

정인보의 「道朗의 三論宗確立」은 근대적 방법론으로 승량을 조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물로 평가받는다.<sup>53)</sup> 정인보에 앞서 승량에 관해 언급한 우리나라 연구자로는 이능화, 최남선이 있다. 이능화는 1918년 『조선불교통사』<sup>54)</sup>에서 승량이 중국 삼론종의 중흥조라고 소개하며 승량의 행적이 언급된 자료를 인용하고, 승량을 포함하여 삼론종의 계보를 정리하였다. 이후 최남선은 1930년 「조선불교-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sup>55)</sup>에서 삼론종의 계보와 승량의 이력을 간단히 언급하며 승량을 삼론종의 초조이자 동방불교건설의 선구자로 소개하였다.<sup>56)</sup> 정인보가 승량을 주시하며 깊이 탐구하게 된 데에는 이들의 언급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근대 들어 승량을 먼저 주목한 것은 실상 일본인 연구자들이었다. 境野黄洋(사카이노 코요)는 1907년 『支那佛敎史綱』에서 길장 계통의 삼론학은 승량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삼론종의 계보에 대해 말하였다. 이후 1929년 『支那佛敎史講話』를 출간할 때 삼론종의 계보를 수정하고 승량이 영향을 미친 인물과 관련하여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한편 佐藤泰舜(사토 타이순)은

50) 정인보, 『전집』 4, 255~257쪽.

51) 위의 책, 260쪽.

52) 위의 책, 259쪽.

53) 김성철, 앞의 책, 415쪽.

54) 이능화,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1918.

55) 최남선, 「조선불교-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 『불교』 74, 佛敎社, 1930.

56) 김성철, 앞의 책, 408~415쪽.

1924년 「原始三論宗の系統說」이라는 논문에서 승랑에 관련한 사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삼론종의 계보, 승랑의 원래 이름, 승랑과 하서 도랑의 관계 등에 대해 밝혔다.<sup>57)</sup>

이러한 일본인들의 연구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이능화는 승랑에 대해 사카이노 코요의 『지나불교사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히며 거기에 인용된 내용을 다시 소개하였다. 아울러 삼론종의 계보를 정리하였는데, 김성철에 따르면 이는 가마쿠라 시대의 凝然이 저술한 『八宗綱要』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sup>58)</sup> 정인보도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인 승랑의 호칭, 행적, 사승 관계, 영향 등을 두루 포괄하여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연구자 湯用彤(탕용통)도 1938년에 발간된 『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에서 승랑에 관한 사카이노 코요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다른 기사를 발굴하여 소개하였다.<sup>59)</sup> 정인보가 「道朗의 三論宗確立」을 1936년 7월 12~14일자 『동아일보』에 발표하였으니 그 이후의 일이다.<sup>60)</sup>

이처럼 20세기 전반에 동아시아 삼국의 연구자들이 근대적인 학문방법으로 불교사를 써 내리갈 때 삼론종의 주요 인물로 승랑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승랑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 연구자로 사카이노 코요, 정인보, 탕용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물을 보면 승랑에 대한 호칭, 행적, 사승 관계, 영향면에서 쟁점별로 이견이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참고한 자료와 분석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승랑에 대한 접근 태도와 관점이라고 본다.

우선 사카이노 코요는 역사적으로 문헌상에서 攝山の 僧朗, 河西의 道朗, 法朗에 대한 혼동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고구려 요동 출신의 「朗」 대사는 섭산의 「승랑」이라고 하였다. 반면 정인보는 그를 「도랑」이라고 부르고 섭산의 도랑과 하서의 도랑을 엄밀하게 구별하지는 않았다. 김성철은 이러한 점은 정인보의 오류라고 보았다.<sup>61)</sup> 하지만 정인보가 섭산 도랑과 하서 도랑이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을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정인보는 문헌에서 「도랑」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는 섭산의 도랑과 하서의 도랑이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도랑」이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것만은 분명함을 강조한 것이다.<sup>62)</sup>

도랑의 혼동이나 호칭 문제보다도 정인보가 더 주목한 점은 승랑의 스승에 대한 부분과 그가 끼친 영향에 관한 부분이다. 승랑의 스승이 누구인지, 즉 어떤 범맥을 이었는가라는 문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57) 위의 책, 439~441쪽.

58) 위의 책, 408~413쪽.

59) 위의 책, 442쪽.

60) 김성철은 정인보가 1947년에 발간한 『朝鮮史研究』 하권에서 「도랑의 삼론종 확립」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카이노 코요, 탕용통 등을 정인보보다 먼저 승랑을 연구한 학자로 보았고, 정인보가 이들의 연구물을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위의 책, 415~416쪽). 그러나 『朝鮮史研究』는 정인보가 『동아일보』에 1935년 1월 1일부터 1936년 8월 26일까지 총 282회에 걸쳐 연재한 「五千年間 朝鮮의 일」을 상·하권의 책으로 엮어 1946년과 1947년에 발간한 것이다. 즉 「도랑의 삼론종 확립」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36년 7월 12~14일자 『동아일보』에서이다. 그러므로 탕용통의 연구물이 발간된 것이 정인보 이후의 일인 것이다.

61) 김성철, 앞의 책, 36~44쪽, 420쪽.

62) 정인보, 『전집』 4, 268쪽.

이견이 두드러지게 제기된 사항이다. 승량과 周顥의 사제 관계 여부, 승량이 梁武帝에게 끼친 영향 등도 그러하다.

가장 먼저 승량을 언급했던 사카이노 코요는 1907년 『支那佛教史綱』에서 ‘鳩摩羅什 → 道生 → 曇濟 → 道朗 → 僧詮 → 法朗 → 吉藏’이라는 삼론종의 계보를 제시했다.<sup>63)</sup> 그러나 그는 1929년 발간한 『支那佛教史講話』 하권에서 ‘도생’과 ‘담제’가 도량의 스승이라는 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鳩摩羅什 → 僧嵩 → 僧淵 → 法度 → 道朗(僧朗) → 僧詮 → 法朗 → 吉藏’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제시했다.<sup>64)</sup> 한편 주옹이 승량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삼론종』을 서술했다거나, 양무제가 승량의 영향을 받아 성실론에서 삼론종으로 전환했다는 길장의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적 언사로 간주하였다. 주옹은 승량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삼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양무제가 승량을 만나 삼론을 접한 후에도 성실론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5)</sup> 그리하여 주옹과 양무제에 끼친 승량의 영향을 크게 보지 않았다.

정인보는 ‘담제’와 ‘법도’ 모두 승량의 스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담제의 경우 길장의 저술에서 담제를 비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담제가 승량의 정통적 본사가 아닐 것으로 추정하였다. 법도의 경우 담제와 나란히 거론할 만한 인물도 아니며, 『고승전』에 법도의 제자로 승량의 이름을 덧붙인 것에서 모멸하는 서술 태도가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는 ‘도량 대사’가 멀리 구마라집의 대의를 익혔다는 길장의 기록이 실제라며, 승량은 龍樹, 提婆, 鳩摩羅什의 제자일 뿐이라고 하였다.<sup>66)</sup> 이는 사카이노 코요가 1907년, 1929년에 제시했던 삼론종의 계보를 모두 부정한 셈이 된다.

그런데 법도 및 담제를 승량의 스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내세운 이가 정인보가 처음은 아니다. 사토 타이슌은 1924년 「原始三論宗の系統說」에서 법도가 삼론과 무관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고승전』에서 언급한 승량의 법도 제자설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삼론종의 계통이 도생에서 담제로, 담제에서 승량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는 일본 삼론종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 길장의 저술에서 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삼론종의 계통을 승량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술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sup>67)</sup>

정인보가 사토 타이슌이나 사카이노 코요의 글을 검토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에서 사카이노 코요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사카이노 코요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의 삼론종 전통에서 말하는 삼론종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능화의 저술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고구려 출신의 승량이 불교 삼론종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닌 인물임을 알게 된 정인보는 중국, 일본의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며 승량에 대한 기록을 살펴 보았다.<sup>68)</sup> 이러한 과정

63) 김성철, 앞의 책, 439쪽 참조. 사카이노 코요의 글을 통해 승량의 존재를 알게 된 이능화 역시 이를 그대로 따랐다.

64) 境野黃洋, 『支那佛教史講話』 下, 東京: 共立社, 1929, 38~42쪽.

65) 위의 책, 100~110쪽.

66) 정인보, 『전집』 4, 265쪽.

67) 김성철, 앞의 책, 441쪽.

68) 정인보가 주요하게 참조하고 있는 중국 문헌으로는 梁나라 慧皎의 『高僧傳』, 隋나라 吉藏的 『中觀論疏』·『大乘玄論』 등이 있고, 일본 문헌으로는 『三論組師傳集』(작자 미상), 『三論玄義檢幽集』, 『三論興緣』 등이 있다.

에서 내용에 착오가 많은 것을 발견하고,<sup>69)</sup> 오류를 바로잡거나 추론을 통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그 결과 삼론종의 계보나 승량의 스승에 관해 사카이노 코요가 제시했던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인보는 길장의 기록이 가장 실재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며 승량이 주옹의 스승이며 승량의 영향을 받아 양무제가 대승으로 전환했다는 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이것 역시 사카이노 코요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탕용통은 『高僧傳』의 내용을 근거로 승량의 스승이 법도라는 것은 받아들였으나, 법도의 스승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사카이노 코요와 달리 승승과 승연을 성실론의 주요 법사로 소개하고 그들을 법도의 스승 계보와 연관 짓지 않은 것이다. 또한 승량이 법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삼론의 학문이 반드시 법도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70)</sup> 이처럼 탕용통은 삼론종의 계보에 대해서 사카이노 코요와 견해를 달리 했다. 하지만 승량이 주옹과 양무제에 끼친 영향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카이노 코요와 거의 같은 입장이었다. 사카이노 코요가 참고하지 않은 자료를 더 추가로 검토했지만, 주옹이 승량의 가르침을 받아 『삼론종』을 지었고 양무제가 승량의 뜻을 얻어 疏를 짓고 삼론종으로 전환했다는 등의 길장의 기록을 과장적인 언사로 본 것은 같았다.<sup>71)</sup>

이상과 같이 20세기 전반기에 한중일 연구자들에 의해 승량은 각각 연구되어 왔는데, 참고하는 문헌의 사실성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이견을 보였다. 이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승량의 스승 계보와 승량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이다. 사카이노 코요와 탕용통은 승량의 스승 및 삼론종의 계보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이지만, 주옹과 양무제에게 끼친 승량의 영향을 축소 평가하는 면에서 비슷한 관점을 보였다. 반면 정인보는 승량의 법도 제자설, 담제 제자설 등을 모두 부정하고, 특정 스승이 있다기보다는 고승들을 두루 만나 보며 멀리 구마라집의 義를 익히고 융합하여 스스로 삼론학을 확립한 것으로 보았다.<sup>72)</sup> 불교 교리를 넓게 섭렵하고 불교의 정수를 총괄하여 독자적으로 새로운 학문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주옹과 양무제에 끼친 승량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동아시아의 대승 불교는 승량 이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얼마 동안 승량의 학문에 의거했다고 볼 정도로 승량의 학문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김성철에 따르면 법도가 승량에게 삼론을 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카이노 코요 이후의 학계의 통설이다.<sup>73)</sup> 또한 김성철은 후대의 연구 성과와 여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량이 담제나 돈황의 담경법사에게 배웠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은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웠던 스승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승량이 특정 스승에게서 삼론 사상을 배웠다기보다는 여러 스승들을 접하고 구마라집 제자들의 저술을 독학하여 스스로 삼론의 이치를 터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74)</sup> 또한 승량의 가르침을 받아 주옹이 『삼론종』을 지었다고 보았고,<sup>75)</sup> 승량으로 인해 양무제가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한 것은 잘 알려진

69) 정인보, 『전집』 4, 264쪽.

70) 湯用彤(저), 장순용(역),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 4, 학고방, 2014, 1353~1354쪽.

71) 위의 책, 1356~1360쪽.

72) 정인보, 『전집』 4, 259~261쪽.

73) 김성철, 앞의 책, 73쪽.

74) 위의 책, 75~90쪽.

사실이라고 하였다.<sup>76)</sup> 이처럼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인보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일부 무리한 주장을 한 것도 있지만 정인보의 연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평가를 하였던 것이다.<sup>77)</sup>

무엇보다 정인보가 일본인 연구자, 중국인 연구자와 달랐던 점은 승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사카이노 코요와 탕용통은 중국불교사에서 삼론학의 주요 인물 중의 하나로 승량을 다루었을 뿐이다. 하지만 정인보는 승량이 고구려 불교의 높은 수준을 중국에 보여준 것으로 파악하며 승량의 업적을 한국불교의 범위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승량이 삼론학을 확립하여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홍익인간’ 정신과 대승불교의 교리가 서로 어울리는 데 있다고 보았다.<sup>78)</sup> 즉 대승불교의 宗旨와 한국 고유 사상의 융합이 동아시아에서 한국불교가 우뚝 서게 한 저력이라고 본 것이다.

#### IV. 맺음말

정인보는 자국의 역사, 문학, 학문, 사상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일생을 국학 연구에 바쳤다. 양명학을 학문과 사상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유교 지식인인 정인보가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도 국학 연구의 차원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문화에 남긴 불교의 공헌이 크고 불교의 유산을 잘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가운데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이 한국불교의 정신이다. 그는 ‘依自와 利他’의 기개와 정신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진수라고 역설하고, 승려들이 국난에 뛰어들어 ‘捨身利他’를 실천한 일들을 중국불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불교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의 호국적 전통이 이어질 수 있었던 연원과 원동력은 우리의 고유 사상인 ‘弘益人間’의 이념과 불교의 근본 정신이 어울린 데 있다고 보았다.

한편 자국과 관련한 학문적 성과를 발굴하고 계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인보가 관심을 가졌던 영역의 하나가 ‘正音學’, 즉 훈민정음에 관한 학문이었다. 정인보는 신미 대사와 학조 대사를 ‘정음학의 명석’으로 꼽고 그들이 쓴 언해문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였다. 이들의 업적을 부각함으로써 훈민정음에 관한 학문에 불교계의 공헌도 컸음을 드러내었다.

무엇보다도 정인보는 한국불교가 이룬 큰 업적은 불교 경전의 해석 방면에서 큰 지혜를 갖춘 인물을 배출한 점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인물로 고구려 출신 승려로서 중국에 건너가 삼론학을 확립한 ‘道朗(=僧朗)’을 주목하였다. 승량은 근대 시기에 일본인 연구자로부터 촉발되어 한국인, 중국인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75) 위의 책, 102쪽.

76) 위의 책, 126쪽.

77) 위의 책, 421쪽.

78) 정인보, 『전집』 4, 257~259쪽.

시작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승랑은 일본인, 중국인 연구자에 의해서는 중국불교사에서 다루질 뿐이고, 그가 끼친 영향에 대해 과소 평가되는 면이 있었다. 그에 반해 정인보는 다양한 문헌 조사와 치밀한 고증을 통해 승랑의 업적과 영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한국불교학의 위상을 높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이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상과 같이 정인보는 불교의 수용 방식, 불교가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 한국불교의 독자성, 한국불교의 위상 등에 관해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양식의 글에서 밝혔다. 여기에서 보이는 한국불교에 관한 정인보의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내부의 고유 사상과 불교 사상의 융합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불교가 독자적 특징을 뚜렷이 지니게 되고, 동아시아 불교에 위업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 이 점이 민족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弘益의 정신이 기반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었던 정인보가 한국불교를 주목하고 한국불교의 유산을 계승하자고 강조한 이유이다.

### 〈참고문헌〉

- 정인보, 『蒼園 鄭眞普全集』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 정인보(지), 정양완(역), 『蒼園文錄』 上·中·下, 태학사, 2006.
- 金集, 「重峯趙先生諡狀」, 『慎獨齋全書』 第11卷.
- 石顛漢永, 「朝鮮佛敎의 精神問題」, 『一光』 5, 中央佛敎專門學校 校友會, 1935.
- 成海應, 「錦山殉節諸臣傳」, 『研經齋全集』 第60卷.
- 宋時烈, 「重峯趙先生行狀」, 『宋子大全』 第207卷.
- 강현모, 『기허당 영규대사의 서사전승 연구』, 역락, 2013.
- 고영섭, 「영호당 박한영과 상헌거사 이능화의 학문태도와 연구방법」, 『한국불교학』 78, 한국불교학회, 2016.
- 김성철, 『승랑 :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지식산업사, 2011.
- 김연재, 「중국근대의 민족불교에 있어서 護國論의 대두와 그 성격」, 『불교학보』 4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6.
- 김용태, 「근대불교학의 수용과 불교 전통의 재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5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김용태, 「한국불교사의 호국 사례와 호국불교 인식」, 『大覺思想』 17, 대각사상연구원, 2012.
- 김윤경, 「근대기 현실인식 및 개혁에 관한 불교와 하국학의 교섭 : 박한영, 이견방, 정인보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4,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 김종진, 「근대불교잡지의 한글인식과 한글문화운동」, 『불교학연구』 43, 불교학연구회, 2015.
- 김효탄, 「이능화의 불교사 인식」, 『불교학보』 40,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3.
- 여희정, 「정인보의 글쓰기와 민족문화의 기획」, 한국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원영상, 「一蓮主義의 불법호국론과 國體論 -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學)의 논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4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中·下, 민속원, 2002(1918년 초판 영인).

조남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조선불교연구」, 『한국사상과문화』 20,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최남선, 「影印 五臺山御牒紋」, 『佛敎』 59, 佛敎社, 1929.

최남선, 「조선불교 - 동방문화사상에 있는 그 지위」, 『불교』 74, 佛敎社, 1930.

최범훈, 「五臺山 上院寺 御牒重創勸善文에 대하여」, 『一山金俊榮先生停年紀念論叢』, 一山金俊榮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85.

최윤곤, 「刊經都監의 실체와 불전 간행 사업」,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1,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2.

하유진, 「불교의 이제설(二諦說)」, 『철학논집』 16,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湯用彤(저), 장순용(역), 『한위양진남북조 불교사』 4, 학고방, 2014.

江田俊雄, 「朝鮮佛敎と護國思想 - 特に新羅時代のそれに就いて」, 『朝鮮』 239, 朝鮮總督府, 1935.

境野黃洋, 『支那佛敎史講話』 下, 東京: 共立社, 1929.

- \* 이 논문은 2021년 9월 6일에 투고되어,
- 2021년 9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 2021년 10월 4일까지 심사하고,
- 2021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 Abstract ■

---

### Jeong In-bo's Perception and Research of Korean Buddhism

Yeo, Heejeong\*

As a Korean scholar, Jeong In-bo paid attention to and explored Korean Buddhism in terms of interest in Korean history and scholarship. He basically recognized the contribution of Buddhism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held the position that the legacy of Korean Buddhism should be inherited well.

He stressed that 'improving oneself and bringing benefit to others' are the essence of Korean Buddhism, and he explained that it was a great feature of Korean Buddhism that monks willingly jumped into the country's turmoil and sacrificed their lives. And he thought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tradition of state-protecting Buddhism was that the spirit of Korea's unique idea of 'humanitarianism' was connected to Buddhism and harmonized with the fundamental spirit of Buddhism. He also revealed that the Buddhist community contributed greatly to the study of 'Hunminjeongeum' by emphasizing that the achievements of Monk Shinmi(信眉) and Monk Hakjo(學祖) were great in the field of research on Hunminjeongeum, which is called 'Jeonggeumhak(正音學)'.

Above all, Jeong In-bo's claim to be the greatest achievement of Korean Buddhism was that monks with great wisdom were cultivated in the interpretation of Buddhist scriptures. Among them, the person Jeong In-bo paid attention to was Do-rang(道朗), a monk from Goguryeo, who moved to China to establish Three-Treatise School(三論學). His research on Do-rang was sparked by Japanese scholars during the modern era, and Chinese and Korean scholars began to show interest. However, the study of Do-rang by Japanese and Chinese scholars was only dealt with in the history of Chinese Buddhism, and there was also an underrated view of the effect of Do-rang. On the other hand, Jeong In-bo praised Do-rang's achievements and influences, and claimed that the status of Korean Buddhism in East Asia was great through Do-rang's existence.

To Jeong In-bo, who wanted to acquire the ethnic identity and create a culture based on the spirit of the humanitarianism, Korean Buddhism was rich in the spirit and cultural heritage that

---

\* Dae-Ji High School Teacher

we have to inherit today.

**[Keywords]** Jeong In-bo, Korean Buddhism, Korean studies, humanitarianism, state-protecting Buddhism, ethnic identity

